



‘하나님 사랑으로 먹고 살다’ 'Fed by Thy love'

후지코 사인스 (Fujiko Signs)

저런 온라인판 (Journal online)

2011년 2월 14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 또는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태복음, 6 장 25 절)고 하셨을 때, 그분은 검약을 장려하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주기를 기대하신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義)”를 구하면 (마태복음, 6 장 33 절), 그들의 나날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권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의 개요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 받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럴듯 확신하셨던가? “내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6 장 34 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부(富)라고 이해하셨던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바로 그때에 받는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그분께서는 치유하기 위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여벌의 신발도 겹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과 제자들은 추수 후에 남겨진 것으로 음식을 대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영적 부요함을 인지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머물 자리를 제공 받았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듯이 주도록 충동한 그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분께서는 모든 보화 가운데 보화를,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타고난 권리와 가치와 자유를 증명했던 진리를 가지고 계셨다.

유월절을 지낼 집이 되었든,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분의 근원이었던 곳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즉 신성의 **원리**이고 무한한 자원의 근원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예컨대 요한복음 10 장 30 절)을 되풀이 하여 선언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 장 11 절)는 이런 일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하셨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부(富)라고 이해하신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바로 그때에 받는 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음식과 돈과 우정과 기회들로 나타나 보이는 무한한 아이디어들을 창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뒤집힐 수 없는 영적 법칙이라고 보셨고,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어머니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이 영적 법칙이 나 자신의 삶 안에서 작용했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던 같은 해에, 나의 남편이 대학원으로 되돌아가자마자 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었다. 임신기간 동안, 나는 임신한 예비엄마들이 충분한 영양을 취하도록 설계된 보조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다. 나는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본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 하나도 말할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는 이 대학원 과정이 4년 안에든 5년 안에든 끝나지 않고, 내 남편이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8년 아니면 9년 아니면 10년을 넘어 끌 것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되었다. (내 남편의 가족들은 그의 대학원 (graduate) 과정을 내 남편 “마크의 ‘조금씩 나아가는’ (gradual) 학교”라고 불렀다.)

우리는 매월 수입의 마지막 한 푼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떼어 놓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는, 콜로라도에서 텍사스로, 루이지아나로, 마지막으로 펜실바니아로,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이미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우리는 저수입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력저력 꾸려나갔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벌써부터 저축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매월 버는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따로 떼어놓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대해 돈을 쓰지 않고 있었다: 케이블 텔레비전도 없었고 칩이나 탄산음료와 같은 주전부리도 없었다. 정말 꼭 써야만 하는 것들만 썼다. 내가 아이들에게 음악이나 무용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어 토요일 학교를 다닐 기회를 주려고 하였을 때에는, 나는 교사들을 보조함으로써 또는 나 자신이 강사로 일함으로써 학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의 아빠는 그들이 장학금만 탈 수 있다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는 반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내 생각에 아이들은 그 말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내 남편의 학구적인 헌신으로 인한 재정적 난관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다. 나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나는 심적으로 절박함을 느꼈고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아프기까지 했다.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과학과 건강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영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의 상황과 정체성을 볼 것인지, 그리고 내 삶 안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영화(靈化)할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즈음에,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접하게 되었다. 메리 베이커 에디가 지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과서인,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영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의 상황과 정체성을 볼 것인지, 그리고 내 삶 안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영화(靈化)할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철저히 자유롭게 하는 훈련이었다.

나는 에디 여사가 결혼시절 동안 그리고 특히 *과학과 건강*의 집필을 시작하였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녀의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그녀의 움직임 수 없는 확신과 용기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과학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인류를 개선하는 가장 일관성 있고 믿을만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기도와, 계속 되는 그녀의 사명 안에서 취한 단계들을 통하여, 여성들이 사회에서 거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시절에 그녀는 더 나은 건강과 더 풍족한 공급과 전례가 없는 성취를 이루었다.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크리스천 사이언스 풀타임 프랙티셔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적어도 네 개의 다른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굵은 글씨체는 강조를 위한 것임, 마태복음 6 장 11 절)라는 구절이 나를 향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다른 말로 해서, 오로지 하루만 – 즉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또는 은퇴 후를 위해서도 아닌- 을 위한 공급을 간청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의 더 깊은 함축 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실재성에 대한 예수님의 깨달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즉 우리는 100% 영적이며 모든 필요가 이미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일별하였다.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가 나의 행복과 풍부함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함에 따라, 자원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들로 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다.

주기도문의 그 구절에 에디 여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굶주린 애정을 채워주십시오,”(*과학과 건강*, 17 쪽)라는 영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진정한 공급의 열쇠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도움, 이지, 공급자로서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이런 특성을 내 삶 안에서 더욱 더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가 나의 행복과 풍부함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함에 따라 자원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들로 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도움을 청한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와 치유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왔다. 내 남편의 예상치 못했던 계약 작업의 형태로 왔다. 그것은 또한 주택의 형태로 왔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내 시간을 다른 직업과 쪼개지 않고 일주 7 일 매일 24 시간 투입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풀타임 치유사역이 가능하도록 되어가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출판협회를 위한 번역 일자리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하나씩 나는 내가 하고 있던 수 많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그만 두어갔다.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로서의 나의 일을 매우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사랑하였다. 그것은 매우 독특하고 만족스러웠다. 그 변환은 내 생각 안에서의 부드러운 변화의 결과로, 아무런 과격함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우리 두 딸 모두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교육비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저축이 미미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었다. 내 가족이 필요로 하는 공급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깨달음이 깊어짐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신중하게 쓰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온 손님 두 사람이 집을 필요했을 때 그들을 맞아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재정을 좀 더 “지혜와 경제와 형제애”의 (*모교회 교범*, 77 쪽) 견지에서 다룰수록, 우리는 매일 매시간의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어갔다.

우리 신성의 부모님의 본성은 빛의 근원이 그 밝음을 내뿜듯 자연스럽게 선(善)을 내뿜는다.

내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과정을 밟은 후, 나는 프라이마리 클래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한 12일 과정을 내가 어디에서 가르치게 될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운동에 봉사하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 장 17 절)는 성경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다.

우리 신성의 **부모님**의 본성은 빛의 근원이 그 밝음을 내뿜듯 자연스럽게 선(善)을 내뿜는다. 나는 기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 섰으며, **그분**의 무한하고, 원칙적이며, 모두를 사랑하시는 본성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이 무한한 **근원**으로부터는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고, 적시의 적합한 공급이 있을 뿐이다.

이 기도들은 응답되었다.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도쿄로 돌아갈 필요가 생겼을 때 곧 내 딸과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생겼다. 마침내 나에게 프라이마리 과정을 가르칠 공간이 주어졌다. 언제나 봉사의 결과로, 나에게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어졌다.

나는 더 이상 “점진적인 학교(gradual school)”나 떠돌이 같은 생활 양식이나 집이 없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집이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나 구조물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내가 필요로 하였던 모든 것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즉 내가 아직까지 상상해오던 것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념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린도후서 9 장 8 절)는 바울의 말씀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